

# 포항,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추진 속도... 산업구조 전환 박차

오천 광명산단에 40MW 1단계 조성 2조 투입, 2027년 상반기 준공 목표 인허가·전력공급 마무리, 공사 본격화 단계적 확장 통해 글로벌 AI거점 육성 철강도시 넘어 AI 혁신도시 전환 가속

포항시가 철강 중심 산업 구조를 인공지능 중심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핵심 인프라인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이 주요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글로벌 AI 데이터센터는 네오AI클라우드사가 오천읍 광명산단단지 내 10만㎡ 부지에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1단계 사업은 40MW 규모로 약 2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포항시는 1단계 완공 이후에도 단계별 확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같은 사업 추진의 배경에는 포항시의 행정 지원이 있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장상길 포항시장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20여 개 기관과 부서, 4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허가 패스트트랙 지원 TF팀'을 운영하며 인허가



글로벌 AI데이터센터 조감도.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

데이터센터 입지의 핵심 요소인 전력 공급 문제도 해결됐다.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계통 영향평가 기술평가를 완료했으며, 올해 2월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협조로 전력계통 영향평가비기술평가까지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와 한국전력간 전기사용 계약을 위한 사전 절차도 모두 마무리됐다.

사업은 지난 1월 건축허가와 부지 계약을 마친 뒤 현재 기존 건축물 철거 단계에 들어갔다. 철거 작업은 오는 4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이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데이터센터는 345kV 무중단 변전소와 인접해 있어 200MW 이상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포항시는 향후 단계별 확장을 통해 이 지역을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데이터센터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포항은 인공지능 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갖추고 있다. 경북의 전력자립률은 2024년 기준 215.6%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포항은 풍부한 전력을 산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 계통망을 갖추고 있다. 또한 철강·이차전지·수소·바이오

등 전략 산업이 밀집해 있어 AI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에도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막스플랑크 연구소 등 세계적 연구 기관이 집적된 과학 연구 클러스터와 포스텍, 한동대 등 교육 인프라도 갖추고 있어 연구 역량과 인재 기반 역시 탄탄하다는 평가다.

포항시는 데이터센터 구축을 계기로 철강 중심 도시에서 AI 혁신도시로의 산업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센터가 가동되면 제조와 연구 현장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AX가 가속화되고 GPU, 서버, AI 솔루션 기업 등 관련 산업 생태계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상길 포항시장 권한대행은 "글로벌 AI 데이터센터가 포항 산업 구조 전환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며 "연구·제조 인프라와 인재를 기반으로 포항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son@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부산시

#### 기후테크기업 42개사 금융지원

부산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기후신기술 육성과 2050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추진한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참여기업 42개사, 운전자금 200억원 금융비용 지원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참여기업의 탄소저감제품 생산에 따른 탄소감축 예상량은 사업 시행 이후인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만7435t CO2eq(이산화탄소환산량)이다. 이는 30년 생 잣나무 약 374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부산 소재 기후테크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기후신기술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거창군

#### 지역활력타운 본격 착공

거창군이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은퇴자 유치를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 지역활력타운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7개 중앙 부처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292억원이 투입된다. 2023년 6월 '지식IN 거창 아로리 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정부 공모 시범사업에 선정됐으며 거창읍 정장리 일원 총면적 4만 8817㎡ 부지에 조성된다. /거창(경남)=이도식 기자

### 사천시

#### 우주항공 지식산업센터 건립

경남 사천시가 우주항공 기업과 스타트업을 한데 모을 공공안전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시동을 걸었다. 총사업비 약 3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27년 4월 착공해 2029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건립 예정지는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533-4번지 일원으로,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9289.48㎡, 대지면적 6991.7㎡ 규모다. 9일 열린 기본설계 착수 보고회에서는 업무·제조·연구 공간의 효율적 배치 방안과 함께 공용회의실·라운지 등 입주 기업 간 소통을 지원하는 시설 계획 등이 논의됐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전라남도

#### 생활체육대회 17개 선정

전라남도는 민간 생활체육 분야 지원사업 공모로 전국 규모 골프대회와 마라톤 등 생활체육대회 17개를 선정, 총 2억 6천7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스포츠 저변 확대에 나선다. 전남도는 지난 1월 전국 규모 골프대회와 마라톤 등 생활체육대회, 기타 민간 생활체육대회 등 3개 분야 공모를 시작으로 사업 검토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회를 확정했다. 선정된 대회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드림투어, 전국 아마추어골프대추전 등 골프대회 6개 등 마라톤대회 4개 등 기타 생활체육대회 7개로 약 1만 9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양수영 기자 ysr6313@

## 경북도, 지역필수의사 20명 확보

### 월 400만원 지역근무수당 지원

경북도가 보건복지부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으로,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명에 불과해 전국 평균 2.1명(수도권 3.5명)에 못미치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포항·김천·안동의료원과 권역책임의료기관인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을 비롯 민간거점 병원인 안동병원, 구미차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동국대경주병원 등 8개 의료기관에 계약형 지역의사 20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는 올해부터 5년간 총사업비 53억



경북도는 2014년부터 올 10월말까지 신청사를 방문한 방문객은 총 70만명이라고 23일 밝혔다. 신청사의 하루 평균 방문객 수는 2000여명이다.

원을 투입해 필수의료 전문의에게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한다. 또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필수의사가 계약만료 후에도 지역에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직무 교육, 경력 개발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경북=김진곤 기자 jinson@

## 나주시, 출생지표 3년 연속 상승

임신부 등록 843명, 역대 최대 기록

전남 나주시가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임신부 등록수가 모두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며 출생 친화 도시로서의 인구 활력 회복 신호를 이어가고 있다.

나주시는 2025년 합계출산율이 1.17을 기록하며 2022년 이후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출생통계(잠정)' 결과에 따르면 나주시 합계출산율은 1.17로 전국 평균 0.8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나주시 합계출산율은 2022년 1.027 → 2023년 1.086 → 2024년 1.16 → 2025년 1.17로 꾸준한 증가 흐름을 보였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 기간인 15세부터 49세까지 낳을 것으

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지표로 지역의 출산 환경과 인구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구 지표다.

나주시는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전라남도 시(市) 단위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했으며 2025년에도 도내 시(市) 단위 2위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합계출산율 증가와 함께 실제 출생아 수 또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나주시 출생아 수는 2022년 680명에서 2023년 735명, 2024년 788명, 2025년 791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임신부 등록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 2025년에는 역대 최대인 843명을 기록해 향후 출생아 수 증가 흐름도 이어질 가능성을 보인다.

/나주(전남)=양수영 기자

## 창원특례시, 대규모 기후·환경 지원 추진

탄소중립포인트·전기차 보급 추진

창원특례시가 2026년 시민과 기업이 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대규모 기후·환경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창원시는 전기자동차 551대와 노후차 조기 폐차 3892대 지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전기차 보급·노후차 조기 폐차·슬레이트 처리 지원·사회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소규모 사업장 측정기기 부착 지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가 망라됐다.

시민 참여형 사업인 탄소중립포인트

제는 에너지와 자동차 두 분야로 나눠 운영된다. 에너지 분야는 전기·수도·가스사용량 절감 실적에 따라 연 2회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자동차 분야는 4835대를 대상으로 주행거리 감축 시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혜택을 제공한다.

수송 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과 저감장치 부착 지원,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도 병행된다. 다만 5등급 차량 조기 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2026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포항초·물곰으로 동해안 미식 매력 알린다

### 경북문화관광공사

METI 테마로 제철 식재료 소개

경북문화관광공사는 3월 '경북 미식 여행 METI(Monthly Eating Travel Initiative)' 테마로 경북 동해안의 제철 식재료인 포항초와 물곰을 소개하는 미식 콘텐츠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겨울 해풍과 거친 동해 바다에서 길러진 식재료를 통해 경북 동해안의 자연환경과 식문화를 함께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한 바람과 파도를 견디며 자라난 재료가 지

역의 음식과 이야기로 이어지는 과정을 담아 동해안 식문화의 특징을 풀어냈다. 포항초는 해풍을 맞고 자라 있어 단단하고 단맛이 강한 시금치로, 모래와 염분이 섞인 토양에서 재배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 시금치와 달리 옆으로 퍼지듯 자라며 뿌리는 붉은빛을 띤다. 포항 지역은 전국 시금치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겨울 시금치 산지로, 포항초는 10월 말부터 다음 해 3월 사이 가장 맛이 오른다.

동해안 별미로 알려진 물곰도 함께 소개됐다. /경북=김진곤 기자